

Session 12 :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계 19:1-10)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I. 하나님의 사명 : 예수님과 함께 할 영원한 동반자를 세움

6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
비하였으니 8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로다 하더라 9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
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계 19:6-9)

- A. 어린양의 혼인 기약 - 창조계를 향한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과 함께 할 자녀들을 세우시며, 그
분의 아들과 영원한 동반자로서 함께 명예를 질 신부들(예수님의 유업)을 세우시는 것이다.

9 여호와와 분깃(상급)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신 32:9)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경험하게) 하시고 18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의 영광의 풍성(한글 KJV,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엡 1:17-18)

- B. 그의 아내는 예비되어(준비되어) 있는데 - 신부는 성숙한 자원하는 사랑과 거룩 안에 걸어가고 있다. 하
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양육하고 정결케 하심으로, 충만하게 예비된 신부를 세우시는 것에
열심을 내고 계신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명에 열심을 내시는
일은 영광스러우며 깜짝 놀랄 일이다.

- C.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 이는 성도들 각자에게 그들의 행위(순종으로
행함)에 따라 주어지게 되는 혼인 예복이다.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말미
암아 받는 의의 옷을 입게 된다(고후 5:21; 사 61:10).

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후 5:10)

41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고전 15:41-42)

- D. 신부의 의복들은 동일하지 않고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될 것이다 : 영광, 재질, 색깔, 향기 등.

- E. 신부는 자신의 결혼식에 입을 옷을 매우 세심하고 애정을 가지고 고르기 마련이다. 신부는 평상시에 옷

Session 12 어린양의 혼인 잔치

을 고를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게 마련이다. 우리는 신랑이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죄에 대한 유혹(타협), 그만 둘 것에 대한 유혹(상심함), 성실함을 잃을 것에 대한 유혹(게으름)을 이겨 나갈 것이다.

- F.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게 될 혼인 의복은 지금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순종으로 인해 지어지고 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영원히 입게 될 의복을 현재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현재의 행함은 자연계에서의 우리의 삶을 훨씬 넘어선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원받은 자들의 혼인 예식 이전에 행한 우리의 선택들은, 혼인 예식 이후의 삶을 향한 준비가 된다.
- G.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 하나님께서 교회를 준비시키시기 위해 그의 능력을 부으심으로 인해 찬양받고 계신다(6절).

II. 교회는 재림의 때에 영광으로 가득 차 있게 될 것이다 (엡 5:26-29)

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 같이 할찌니 ... 29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엡 5:26-29)

- A.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재림 때에 교회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알려주며 정의해주고 있다. 교회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으며, 깨끗하게 씻겨 있을 것이다. 이는 **티나 주름잡힌 것이 없고**(그녀의 행함을 반영하는 의복), **흠이 없는 것을**(그녀의 내적인 삶을 반영해주는 피부) 말한다. 교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들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 이 땅에 있을 때에 깨끗하게 씻겨지게 될 것이다. 이는 매우 영광스럽고 놀랄만한 일인데, 왜냐하면 전 세계의 교회들은 현재 정결함으로 세워져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인가?
- B. 이 영광이 어떻게 교회 위에 풀어지고 부어지게 될 것인가? 타협하는 성도들이 받게 되는 압력은 3가지 종류로 볼 수 있다. 이는 사단의 분노와 인간과 죄, 그리고 우리를 위해 견책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12:5-11)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선호하시는 은혜로운 수단은 그분의 말씀 (26절)과 기도(계 22:17)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애정을 한 몸에 받는 자들임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이다. 교회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을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을 분량을 먹어야만 한다.
- C.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변화시켜나가기 위해 권능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노래하며 선포할 사람들을 세우는 데에 큰 은혜를 부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 가운데 있는 시간들 가운데도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 D. 기도과 금식, 말씀의 묵상과 순종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두도록 한다. 이 행함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얻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해보면, 우리가 말씀과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을 추구함에 따라, 우리의 냉랭해진 마음을 하나님 임재의 화롯불 앞에 두게 된다.

Session 12 어린양의 혼인 잔치

- E. 우리는 말씀을 읽어나가며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활발한 대화를 해나가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그분으로부터 받게 된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의 삶에서 “대화 주제”를 제공한다.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믿을 것을 권고하심에 대해,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러한 진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들을 우리에게 더욱 계시해주시기를 구하게 된다.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진리들을 그분께 다시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에 대해 헌신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게 된다.

III. 신부의 필수적인 3중적 부르짖음

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데도 ... 20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 (계 22:17,20)

- A. 이 시대가 끝나게 될 때는, 교회가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서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장 명료한 종말론적 예언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행하고 계실지에 대해 계시해준다. 교회는 성령님과 연합 가운데 있으며, 권능으로 기름부어져 있으며, 중보기도에 헌신되어 있으며, 신부의 정체성으로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추수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있다.

- B.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오실 것에 대한 3중적인 부르짖음 (성령님의 돌파)

1. 우리 가까이(NEAR US) 친밀감으로 가까이 오시길 (갱신 혹은 개인적인 돌파) : 내 마음을 만지소서
2. 우리에게(TO US) 부흥으로 임하시길 (성령님의 역사적인 방문하심) : 우리가 주의 통치하심을 볼 때까지, 우리의 도시 가운데 이적과 기적으로, 사도적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 우리를 위해(FOR US) 하늘에 오시길 (예수님의 재림) : 온 세계 위에 임하소서

- C.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권세와 다스림 아래 땅을 위임하셨다.

16 하늘은 여호와와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시 115:16)

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 1:26)

7 저(사람)를 잠간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8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히 2:7-8)

- D. 각자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특정한 부분의 권세와 다스림의 영역이 있는데, 이는 그들의 내적 자아, 사역, 재정, 가족 관계,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등이 되기도 한다.

Session 12 어린양의 혼인 잔치

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낮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 16:32)

13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 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4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고후 10:13-14)

14 또 어떤 사람(예수님)이 타국(하늘)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마 25:14-15)

12 가라사대 어떤 귀인(예수님)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3 그 종 열을 불러 온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눅 19:12-13)

E. 기도는 언약적인 방법(covenantal way)인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다스림 아래 있는 부분들(마음, 환경, 지역 등)의 문을 열게 된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언약적인 근거 아래 우리의 다스림 아래 있는 영역(내적인, 외적인)에 임하시도록 한다. 기도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언약적인 길을 열어주게 된다. 성령님께서서는 그분이 초청받으시는 분량만큼 임하신다. 다윗의 열쇠와 하나님 나라의 열쇠는 언약에 의해, 하나님의 법정 앞에 공의로운 영역에 움직인다.

F. 신부는 주께서 돌아오셔서 거하실 곳을 개인적으로, 연합하여, 지역적으로 준비할 것인데, 이는 신부가 예수님을 향해 친밀히 오시며(near us), 부흥으로 오시며(to us), 우리에게 재림하시길(for us) 초청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 2 저(다윗)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 4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5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시 132:1-5)

IV. 혼인 예복을 얻을 것에 대한 권고

A. 우리는 흰 옷을 사거나 그것을 취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치시는 대로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 이 옷들은 현재의 삶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를 드러내준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흰 옷들을 주시기 원하신다.

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의복이 없음)를 보이지 않게 하고 ... (계 3:18)

B. 어떤 이들은 구원을 지키지만 그들의 상급을 잃는 해를 받게 될 것이다.

14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고전 3:14-15)

Session 12 어린양의 혼인 잔치

8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요2 8절)

- C. 하나님께서는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모든 눈물과 모든 슬픔들을 씻기실 것이다.

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 (계 21:1-4)

- D.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음으로(기도) 의복을 지킬 것에 대해 권면하신다. 우리는 자신의 의복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지킬 수도 있었던 의복을 잃기도 하게 될 것이다.

15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 16:15)

- E. 성도들은 타협으로 인해 자신의 고백을 더럽히거나 혼인 예복을 잃게 될 수도 있다.

4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 (계 3:4-5)

- F.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 것으로 인해 수치 가운데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권고한다.

28 자녀들아 이제(now)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1 2:28)

- G.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땅에는 혼인 예식을 축하하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의 “친구”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사용하신 것과 동일한 단어이다(마 26:50). 그를 결박한다는 것은 그를 죄인으로 잡아 어둠(불 못) 가운데 던짐을 말한다.

2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3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4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11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이여늘 13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 (마 22:2-4,11-14)